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캐릭터 연구

이강현*

A study of characters for digital media storytelling

kang-hyun Lee*

요약 문학작품의 전통은 작가의 개성에 의해서 계승·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의 전통이 자체의 내재적 동력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인식을 전제 한다면 한 작가의 작품 연구는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연속성으로 이어주는 전통적 실체를 파악해야 하며, 또 이러한 연구는 시대를 초월한 한국문학 내부에 흐르는 맥을 짚어보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전통과 해당 작가의 개성을 고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상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문학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주제어 : 캐릭터, 스토리텔링, 플롯, 미디어, 서사구조

Abstract Characters also are uneducated people and have simple, negative. They are not complicated, very simple like all that they concerned are instinct and enjoy of that.

The lowest class people don't have any deep thought about their miserable life, and don't appear any will to overcome their. We, readers can assume their poor life in a real way.

Readers also can have a strong view resistance against strong men and realize the social situation. Through these simple-minded characters, readers could have attachment about life cause these characters have life pain and energy of instinct in very difficult situation. These characters are not evil. They are just doing this because they have to survive.

Key Words : Character, storytelling, plot, media, novel

1. 서사구조의 일반성

소설이 자아와 세계사이의 담론이라는 전제는, 소설은 표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자아화하지 않고 그 현실을 자아와 세계 사이의 담론으로 인식하는 양식인 것이다.

고대의 서사시를 자아와 세계 사이의 균열이 없는 전체성을 지닌 문학 장르로 본 루카치는 현대를 자아와 세계가 대립되는 시대로 봄으로써 소설의 현실과 자아사이의 관계를 특히 주목하였다.

문학작품의 전통은 작가의 개성에 의해서 계승·형성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의 전통이 자체의 내재적 동력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인식을 전제 한다면 한 작가의 작품 연구는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연속성으로 이어주는 전통적 실체를 파악해야 하며, 또 이러한 연구는 시대를 초월한 한국문학 내부에 흐르는 맥을 짚어보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전통과 해당 작가의 개성을 고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김유정 문학의 개성적 특성을 여성형 인물로 정리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모든 작가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상상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스스로 반복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상상

*중부대학교

논문접수: 2012년 10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20일

력이 아무리 풍부하고 다양한 작가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개별적 언어체계와 고유한 현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Leon Edel의 견해는 작가적 상상력보다 현실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설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식의 여파로 구축된 세계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제는 작가의식의 기저가 되는 현실상황을 검토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한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에 대하여 맹렬하게 저항하거나 사회의 변동리에 밀려나 있기도 한다. 작중인물이란 작가가 그 시대의 사회적 조직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의식의 형성은 성장기의 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성장한다. 한 개인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은 개인의 성격형성을 주도한다.

의식의 형성을 자기신체나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과 일련의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Jung 역시 의식의 기저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주목하였다. 한 작가의 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애와 시대적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당위성 때문이다. 또 이 과정은 작가적 시각이 의식의 범주에서 파생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한다.

소설이 한 개인적 삶의 총체성을 드러낸다는 루카치의 견해나 작가의 체험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표현이 작품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생애나 체험 등의 문학적 배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현시키고 부조(浮彫)해보이려는 인생의 의미는 그 작가 자신의 인간내용을 전제로한 분신임에 틀림이 없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바로 작품이 성장기의 체험이나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침전된 의식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예술에 대한 정의중 가장 일반화된 개념인 미는 대체로 그 사물의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다. 미는 마치 어떤 특수한 쾌락을 유발시키는 인식 작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특수한 쾌락이 발생하듯이 형식적 특성에서 유형화된다.

따라서 미는 작품이 무엇을 의도하려 하였는가 아닌 작품자체가 지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자세에서 고찰

되지 않으면 그 작품이 지니는 미학적 특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

미적쾌락은 그 사물의 미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효용이나 목적의 개념이 아닌 사물이 지니고 있는 내용에 의존한다.

미적의식은 미적 쾌락과 미적 이해의 정규혼합물이며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부분과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와의 순수한 형식적 조화에서 연유된 구성의 미학적 인식과, 둘째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에서 연유된 보완의 미적인식과, 마지막으로 작품의미학적 특질을 인식함에서 연유된 압축의 미학적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미적 인식 구조 중 소설의 미학적 특질인 압축의 미학적 인식을 통하여 작가의식과 성격분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논의 중, “서사의 본질은 독자로 하여금 한 사건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려는 각자의 의도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는 정의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사건의 동향 속엔 등장인물의 성격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교화적이기보다는 재현적 성격을 가지는 근·현대 소설들은 인간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을 중시하고 그것의 재구성에 역점을 두어 인간적인 것을 탐구하여야 한다.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성격화는 상황과의 갈등, 인물의 행동, 혹은 어조, 보조 인물과의 갈등, 인물의 이름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2. 스토리텔러의 캐릭터 창조

김유정 소설의 <술>은 ‘계속’이라는 들병이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처자를 거느린 근식이 들병이에게 바람이나, 술값으로 자기 아내의 속옷을 비롯해 숟가락, 땃돌짝, 술 등등 가재도구를 가져다 주며 들병이의 호기심을 사려한다. 근식은 자신이 처한 궁핍한 삶을 아내의 말처럼 밤마다 짚신짜이라도 삼아서 개척할 생각을 안하고 들병이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든다. 여기서 들병이로 등장하는 계속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여성이다. 남편과 아이까지 있으나 동네 건달인 근식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자기에게도 남편이 있었으나,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다 후딱하면 두들겨 패고 벌여 놓은 돈푼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건달 수 없어 석 달 전에 갈렀다”며 근

식을 유혹한다.

이에 근식이는 ‘아리랑 타령 한마디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지’라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돈 잘 버는 들병이와 부부가 되어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겠다는 희망에 들뜬다. 이는 들병이에 대한 애정보다는 ‘특하면 굶고 지지리 고생만 하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생도 하직을 하자니 귀엽고도 일변 안타까운 생각이 없을 수 없다.”는 여유까지 부리고 내일부터 계속을 따라다니며 잘 먹을 생각에 부풀어 마지막 남은 술까지 빼어들고 온다. 들병이 계속과 더불어 새 삶을 찾아 나서기로 한 새벽, 계속이과 같렸던 본 남편이 나타난다.

“이리 온, 아빠 여자다.”

하고 귀설은 음성이 들리지 안는가...(중략)...

걸걸한 목소리는 또 들린다.

“이리 와, 아빠 여깃다니끼까는”...(중략)...

“이놈아, 왜 성가시게 굴어?” 이러케 아이를 꾸짖고
“어여들 편히 자게유!”

야야 쾌히 선심을 쓰고 뒷목으로 도로나려간다.

그 태도며 그 말씨가 매우 맘세조하 보였다. 마는 근식이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견딜수 업슬만치 살을 저미는 듯 하였다.

<술>

계속이가 남편과 같렸다고 속이고 근식과 같이 살자고 유혹한 것은 근식의 살림살이를 차지하려는 수단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사실 계속의 남편은 들병이가 된 아내 뒤에서 아내를 술장사를 시키고 매춘의 대가로 곡식, 키, 함지박, 숟가락, 술 등을 받아 오게 했던 것이다. 또한 들병이 아내와 근식이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매춘을 묵인하며 남편이 아기를 돌보고 있는 장면은 들병이만의 특수한 풍경으로 파악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기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아내는 매춘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해 남편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보편적인 의미의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남녀 관계는 성적인 것보다 궁핍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허긴 그렇지. 놈이 원체 못나서 그래.”하고 얼뜬

농치는 게 상책이었다.

내일부터라도 계속이를 따라다니며 먹을 텐데 판은 이것저것을 가리다는 죽도 못 빌어먹는다. 그보다는 몸이 열과[과열]에 난대도 잘 먹을 수만 있다면야 고만이 아닌가.

그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뭉태란 놈의 흥은 그만치 봐야 할 것이다.

<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을 팔아도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인물의 설정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현실극복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현실에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된다.

<봄·봄>, <동백꽃> 에 나오는 점순이며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다. <봄·봄> 의 점순이가 열여섯 살의 아무진 사춘기 소녀인 것처럼 <동백꽃> 의 점순이 역시 열일곱 살의 외향적이며 활발한 성격이다. <봄·봄> 의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클 때까지 학수고대하며 장인택 머슴일을 한다. 점순이는 빨리 성례시켜달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조르라고 나를 부추기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루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꼭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래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하고 혼자서 종알 거린다.....“그럼 어떻게?”하니까 “성예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뎅히 바라보았다.

<봄·봄>

<봄·봄> 의 점순이는 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네 어른들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하고 물으면 “염려마셔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하고 <동백꽃> 의 점순이의 천연덕스럽게 응

수하는 대답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격이다. 또한 마름의 딸인 점순이는 그의 아버지 땅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나에게 감사를 건네주는등 애정표현을 한다. 나는 불통명스럽게 너나먹으라고 거절한다. 그 이후부터 점순이는 자신에게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구는 나를 닭싸움으로 괴롭힌다. 그러다가 나는 핫김에 점순네 닭을 죽이게 된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때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자식아! 누집 닭인데?”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열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리고 뿔에 떠 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채 그대로 펍 쓰러진다.
<동백꽃>

나는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을 후회하며 울음을 놓는 약하고 소극적인데 반해 점순이는 나를 달래며 집에는 말하지 말라며 나를 밀쳐 함께 포개어 눕게하는 대담성도 보인다. 이렇게 <봄·봄> 과 <동백꽃> 에 등장하는 점순이는 김유정 작품에서 매사에 있어서 남성을 압도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이다. 순박하고 듬직한 일심으로만 일하는 남자한테 접근하여 결혼 약속을 받아 내도록 강요하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이해타산적인 면도 있다. 자기 아버지 수염을 잡아채도록 지시까지 하는가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그녀에게 환기 시키고 남자를 안고 먼저 쓰러지는 당돌하고 대담한 여성이다. 여기에 속하는 여성 인물은 외형적이고 활달하고 야무지고 적극적이기도 하다.

둘이들 이렇게 행복스러이 웃고 즐기던 그 술이였다. 그러나 예측하였던 달가운 꿈은 몇 달이였고 특하면 굶고 지지리 고생만 하였다. 인제는 마땅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는 조금도 서슴없이 술을 쑥 뽑아 내려놓고 또 그담 걸 찾았다. 근식이는 어두운 벽 한복판에 서서 뒤급한 사람처럼 허둥지둥대인다. 그렇다고 무엇을 찾는 것도 아니요 뽑아는 술을 집는 것도 아니다. 뿔뿔을 가져가야 할는지 실은 가져갈 그릇도 없거니와 첫째 생각이 안 나서이다. 올 때에는 그렇게도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니 실상 와 닥치니까 어리둥절하다.

<술>

근식이는 새로운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들병이와 살림을 계획하면서 자기 집의 술을 훑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몰염치 한 인물의 설정 역시 현실에서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이고 현실개선의 의지적 인물의 구현이다.

또한 남자를 유혹해 내어 돈과 물건을 뺏어내는 <술>의 계속이, 남편에게 매도 안 맞고 사랑받기위해서 스스로 동리 부자 이주사에게 몸을 파는 <소낙비>의 춘호 아내가 있다. 이들은 자식과 남편이 있는 주부인데도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매춘을 하여 돈과 물건을 장만하여 남편에게 재물이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추가며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실리적 인물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여급은 몸을 파는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정숙의 경우 달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던 그녀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술과 씨름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나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라고는 여급이었던 것이다.

카펜가 뿔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 들인지 모른다. 영애하고 아끼고 는 아무리 잘봐도 씨알이 사람될 것 같지 않다. 아래웃덕도 몰라보는 애들이 난봉질에 향수만 찾고 그래도 영애란 계집애는 비록 심술은 내고땀망정 뿔 물으면 대답이나 한다. 요 아끼꼬는 방세를 내래도 입을 꼭 마들고 안차게도 대꾸한 마디 없다.

<따라지>

<따라지>의 아끼꼬는 열 아홉 살 어린 나이로 여급일을 한다. 방세내라고 재촉하는 주인댁 어른을 놀리는 요령을 보아선 열아홉 살인 아끼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의 매춘 행위는 일확천금의 돈과 쾌락을 쫓아서 그들이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일중

의 살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만큼 이 일에 종사하는 여성 작중 인물의 유형은 억척스럽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둘째는 기생, 도시빈민, 기타등도 있다. 이는 실제 <생의 반력>에서 명렬군은 김유정에 해당하고 명주 기생은 김유정이 짝사랑한 박죽주라는 인물이듯이 자전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 인물은 이해 타산적이고 생활력이 강하다. <생의 반력>의 명주 기생은 주인공에게 있어 삶의 소망의 대상이며 이상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냉담하게 대하며 주인공의 사랑을 거절한다.

그러던 것이 닳새가 못 되어 그 병의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명렬군이 입때까지 살아 온 그 주위의 윤곽이었다.

그러면 그는 살아 나갈라는 의욕이 없었는가. 하고 이렇게 의심할지도 모른다. 마는 그도 한 개의 신념이 있었고 거기 뚫으는 노력을 가졌었다. 우선 그중거로 그는 명주라는 기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누님을 영원히 잠재우고자. 무서운 동기를 가졌든것도 역시 살아 나갈 길을 찾고 잇든 한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차차 알 것이다. 그의 우울증을 타진한다면 병의 원인은 여러갈래가 있으리라. 마는 그 근변이 되어있는 원병은, 그는 매정에 주리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에게 주리었다.

<생의 반력>

주인공 명렬은 한 여인을 돈을 주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섹스파트너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벗어나고픈 비상구로서 정신적인 애정을 쏟은 것이다. 여기서 명주 기생은 극진히 사랑받는 여인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열렬한 짝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주인공의 사랑을 외면한다. <생의 반력>의 주인공은 조실부모로 인한 애정결핍, 특히 모성 결핍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현실적 억압의 요인들이 함께 겹쳐져 김유정 자신의 자아에 커다란 점진적 공감을 이루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을 채우는 방편으로 그는 여인을 지극한 사랑의 형태를 띠고 이상화하였다.

3. 결론

디지털 미디어의 캐릭터는 서사구조에 나타난 작중인물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구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의지형의 인물들은 1930년대의 농촌 현실위에서 발생한 유랑 농민의 변형된 모습이다.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서 등에 업고 남편을 따라 나서는 <술>의 들병이, 눈보라 치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부지깽이로 솥뚜껑을 툭 툭 두드리며 들병이 연습을 하는 <안해>의 아내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한결같이 순박하고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보이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인상의 변형된 모습이라 하겠다.

이처럼 가난과 연관된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김유정 서사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소낙비」를 비롯한 그의 많은 소설 속에는 남편의 병이나 노름 밀친, 빚, 생계 때문에 단돈 몇 푼에 몸을 팔거나 술집 작부 또는 들병이로 나서는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매춘을 뻔히 알면서도 분노나 죄책감 없이 묵인하는 남편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작중 인물들의 울고 그름을 판 가름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다만 이들의 행태를 유머, 아이러니, 풍자, 해학적 수법으로 그려낸다.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늘 짙은 우수가 깔려 있는 게 캐릭터의 특징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사엽(1948), 조선문학사, 정음사.
- [2] 김영기(1992),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 [3] 김우중(1973),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 [4] 김윤식 김현(1973), 한국문학사, 민음사.
- [5] 김지원(1983),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사.
- [6] 김태진(2007), 文學과 삶, 한국학술정보.
- [7] 박세현(1998), 김유정의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 [8] 박정규(1992), 김유정 소설과 시간, 깊은 샘.
- [9] 박철석(1998), 한국현대시인론, 민지사.
- [10] 신윤상(1963), 한국의 유모어, 영진사.
- [11] 유인순(1998), 김유정문학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이 강 현



- 1981년: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문학사)
- 1984년: 세종대학교(문학석사)
- 1994년: 세종대학교(문학박사)
- 1994년~현재: 중부대학교 방송 영상 학과 교수
- 관심분야: 방송문학, 고문학

· E-Mail: bluesky@joongbu.ac.kr